

문제1.

제시문(가)와 (나)는 낭비의 개념과 범위, 낭비에 대한 허용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 제시문(가)에서 낭비로 치환될 수 있는 '도락'의 개념과 특징으로 보아, 낭비는 본능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활력을 소모하여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가)는 낭비의 순기능과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여, 정신적 도락행위(낭비)에 의해 문학, 과학, 철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육체적 도락행위에 의해 기쁨을 느끼며, 이런 낭비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들어 인위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시문(나)의 경우 벽돌공의 필요 없는 몸의 동작을 낭비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육체적인 활동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가)와 다르다. 그리고, 프랭크 길브레스는 발명품을 통해 벽돌공의 필요 없는 몸의 동작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며 편한 자세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낭비를 부정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인위적으로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와 상충하는 입장을 보인다.

제시문(다)에서 인간은 효율적으로 기억을 하기위해 필요한 기억을 선택하고, 필요없는 기억을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망각하는 역설적인 과정을 거친다. 이는 본능적이고 생명보존 형태의 일부분인 낭비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제시문(가)의 입장과 상충한다. 반면, 제시문(다)는 쓸모없는 기억을 망각하고, 효율적으로 기억한다는 점에서 제시문(나)와 일목 유사한 듯 보인다. 하지만, 제시문(나)의 프랭크 길브레스의 경우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발명품을 통해 낭비를 줄이려고 노력한 반면, 제시문(다)에서 인간의 필요 없는 기억을 망각하는 행위는 변칙적이고 의도치 않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2.

제시문(나)에서 프랭크 길브레스가 여러 가지 발명품을 발견하고 비계를 조정하는 일만 전담하는 노동자를 두는 등의 분업을 활성화 하여, 벽돌공의 필요 없는 몸의 동작을 없애고 피로감을 줄여 효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을 이용해, 채용담당관들도 서류심사에서 우수한 인재가 떨어지는 낭비를 줄이고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서류심사에서 최저의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넘는 모든 인원들을 면접심사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제시문(라)의 실험결과 표를 보면, 사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비율을 비교할 실험 기준으로 최초 공개 사진의 희미한 정도와 공개시간을 두고 있으며, 실험참가자들은 최초 공개 사진의 희미한 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공개 시간이 길수록 사진을 정확하게 인지한다. 하지만 최초 공개시의 희미한 정도가 높을 때, 공개 시간이 35초일 때의 정확히 인지된 사진의 비율과 122초일 때의 정확히 인지된 사진의 비율의 차이가 단지 0.1%인 것으로 보아 최초 공개시의 희미한 정도가 높을수록 사진을 정확히 인지하는데 공개 시간의 영향을 덜 받으며, 공개 시간보다 최초 공개시의 희미한 정도가 사진을 정확히 인지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프랭크 길브레스는 서류 심사에서 최대한의 인원을 합격시켜 놓은 다음 면접심사에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때, 시간투자를 얼마큼 하느냐보다, 업무의 첫 단추. 즉 처음 시작을 얼마나 현명하고 뚜렷하게 하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